

2/23/93

日

孝民

로컬뉴스



그러나 청소년무속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각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LA청소년 네트워크의 리즈 고메즈 사무국장은 20일 『LA일원의 청소년무속자들이 단순 무속행위를 넘어서 폭력행위까지 예상롭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격이나 윤간등 중범죄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35% 정도는 적권종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알



최 제13회 범죄퇴치기금마련 마라톤대회가 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월셔블러버드와 〈이영표기자〉

인상

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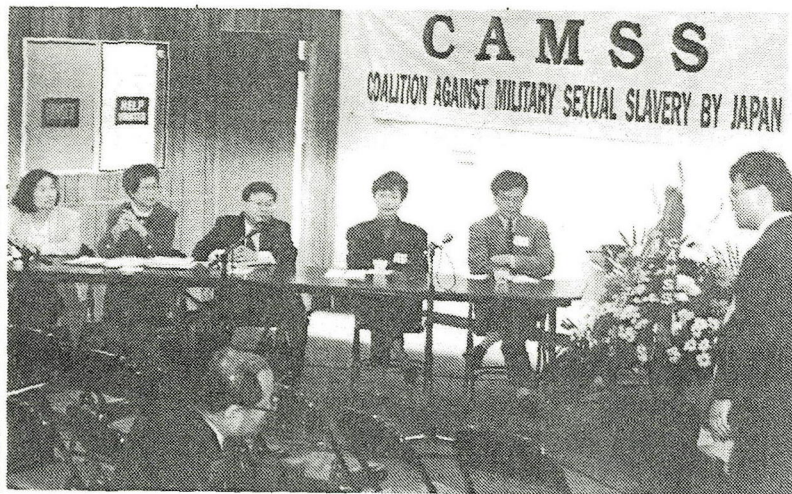
본채널서비스」하는 대신 현재 120센트를 받고 서비스 시청료는 1센트로 인상할고 밝혔다.

UACC측은 『이번 인상 계획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기본프로그램 가입가정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월19달러 40센트로 풀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의 시청료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레일러에 화재발생
신원미상 한명 숨져

2일 새벽2시쯤 사우스

정신대만행규탄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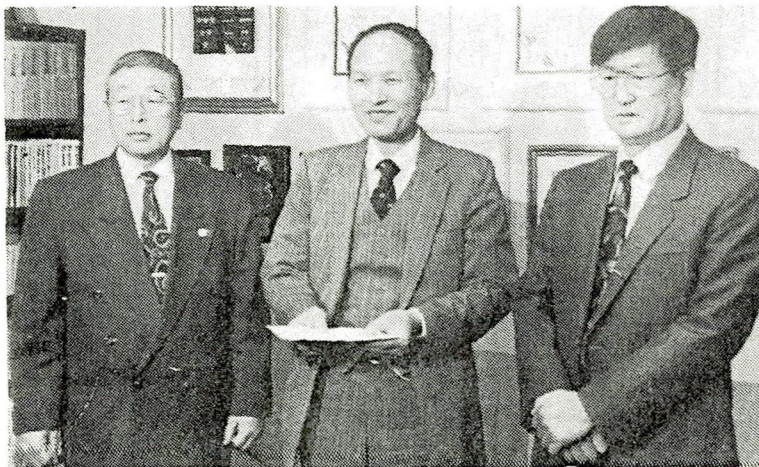
미주정신대 대책협의회관계자들이 과거 일본군부권력이 저지른 정신대 만행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CAMSS 일본정부에 진상규명 촉구

미주정신대 대책협의회(CAMSS·공동위원장 김옥숙)는 20일 나섬영 락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군부권력이 저지른 정신대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이에따른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학계, 종교계인사 50여명의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협의 회측은 한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양심세력 및 인권단체와 연대, 과거 일본군부 권력의 정신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도의적인 공개 사죄를 요구했다.

주말 타운 행사



고 이재성군 추모장학회 회장 김진형씨(왼쪽)가 이재선목사(가운데)에게 이승호군치료비로 대달라며 1천달러를 전달했다.

백혈병 앓던 이승호군 돌아

이재성군 추모장학회서 1천불 전달